

불교문화재 9점 등 36점 전 세계에 1년간 소개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경우)은 한국의 대표 유물 36선을 선정, 아리랑 TV 해외위성방송을 통해 1월 5일부터 일년 동안 전 세계에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삼성문화재단·아리랑국제방송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이번 문화유산 해외 홍보 프로그램의 명칭은 'National Treasures of Korea'로, 채널 Arirang TV Korean(국내 케이블)과 Arirang TV World 1(아시아, 유럽) Arirang TV World 2(미주)를 통해 유물별 6회씩 하루 18회, 2006년 12월 31일까지 총 1800회 방영된다.

방영되는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하고 있는 유물 24선과 삼성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12선이다. 이 가운데 불교미술품은 탑마도·연가칠년명금동불상·감산사 미륵보살·경천사10층석탑·천흥사종·반가사유상(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아미타삼존도·신라백자목서대방광불화염경·금동신묘명삼존불(이상 삼성리움박물관 소장) 등 9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중국과 일본의 유물과 차별성이 있어 우리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국 최고의 걸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70세이상 고령자 공·능 안내지도위원 채용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공·능 관람 서비스 개선 및 고령인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관람안내 지도위원'을 채용한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정부부처에서 공개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이번에 채용되는 관람안내 지도위원은 장경궁·덕수궁·종묘·서오릉·선정릉 등 모두 5개소에 배치돼 관람 안내 및 질서유지 계도, 수표업무 보조, 문화재 지역 환경정화 작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공필직이, 문화유산해설사 등으로 활동중인 자원봉사자, 해당 공·능 근무경력자 및 교사 경력 소지자를 우선 선발한다. 채용기간은 6개월이며, 해당 공·능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1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접수는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교육관에 있는 문화재청 공·능관리과에서 받는다. (023701-7570)

해외 저명 불교학자 '장서' 금강大·가산研에 온다

국내 불교학계에 귀한 불교학 자료들이 다량으로 속속 반입되고 있어 불교학 연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지난해 7월 작고한 독일의 저명한 불교학자 하인츠 베헤르트(H. Becher) 교수가 남긴 장서 2만여 권을 인수키로 했으며, 금강대(총장 직무대행 조성환) 또한 독일의 한 전문사서 펠릭스 에르프(F. Er)씨로부터 소장 도서 5천여 권을 최근 사들였다.

독일 괴팅겐 대학의 베헤르트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콤브리치(R. F. Gombrich) 교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기 팔리어 불전 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인물이며, 에르프씨는 대표적인 인도 불교학 연구자였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인도철학과 전문 사서로서 중관학 전공자다. 두 사람 모두 불교학에 대한 탁월한 안목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서 이들의 소장도서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택의 서가 두 곳과 괴팅겐 아카데미 등에 장서가 보관돼 있는데, 그 길이만도 100m(5단 서가에 달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측은 대략 2만여 권으로 수량을 추산하고 있다.

그의 장서에는 팔리어·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 원전 자료는 물론 18-19세기에 간행됐으나 지금은 절판돼 구할 수 없는 서구의 불교학 연구서가 수도를 한다. 또 경전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필사본 자료도 다수 들어 있다. 특히 50-60년대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수년간 채취하면서 자료를 수집한 적도 있어 희귀 자료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월경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가 도착하면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소장 도서 규모는 3만여 권으로 크게 늘어날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실장 현원 스님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한·티베트어·팔리어역 대장경 등 원전 중심인 반면, 이번에 들어오는 베헤르트 교수



불교학 관련 자료가 빼곡하게 꽂혀 있는 하인츠 베헤르트 교수의 서가.



하인츠 베헤르트 교수.

의 장서는 2차대전과 18-19세기의 서구 불교학 연구 초기 도서가 다수 들어 있다"며 "내용과 성격상 균형 잡힌 자료 보수가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목록작업을 거쳐서 불교학연구자들에게 자료 열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강대가 최근 들어온 에르프 박사의 장서에도 귀중한 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

게 구할 수 있을은 물론, 연구자가 자신만의 안목으로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구해온 자료를 일거에 사들일 수 있어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미 일본과 대만 등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개인 장서를 사들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장가학회 또한 베헤르트 교수의 장서를 사

금강大 전문사서 에르프씨로부터 5천여권

가산研 불교학자 베헤르트 장서 2만여권 인수

절판·희귀 서적 확보... 불교학자들에 '공개'

다. 70·80년대 불교학을 공부했던 에르프 박사는 불교학연구자의 길을 접고 전문 사서로 남기로 결정, 책을 매각했다. 에르프 박사의 장서에는 티베트 불교관련 개인전집류 등 절판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다. 금년 가을 개관되는 금강대 불교학 도서관에서 에르프 박사의 장서를 만날 수 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나 금강대의 경우에서 보듯 전문 연구자의 개인 장서를 통째로 구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도서 확보 방법이라 할 만하다. 절판돼 더 이상 구할 수 없게 된 책은 책을 손

들이기 위해 유족에게 거액을 제시했다. 하지만 먼저 신속하게 움직인 덕에 가산 불교문화연구원원이 장서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연구원은 "역사가 짧은 도서관이 오래된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명학자의 장서를 기증받거나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불교학 연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6>

불확정성 원리와 제행무상

20세기 초, 코펜하겐의 보어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론을 발표해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할 때였다. 독일의 하이젠버그라는 젊은 과학자가 이러한 이론의 물리·수학적 의미에 대해 보어와 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은 과학사에 아름다운 추억거리로 남아있다.

이 토론의 결과 26세의 하이젠버그는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도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불확정성 원리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실험적으로 입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빛을 쬐어주면, 입자의

위에 반사하는 꽃 표면의 분자마치 스퀴핑과 같은의 늘어짐에 의한 반응을 반사하는 이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 낸 오류라고 하는 편이 옳다. 오로지 측정에 의해서만 존재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존재의 모습이다. 마음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불교의 유심론의 손을 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설파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모든 행에 서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가르침에서 불교의 허무주의를 떠올리

입자 위치·운동량 동시에 측정 불가능 존재와 존재 사이 변치않는 순간 있는가

운동량이 변해 있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양을 알 수 없다는 것에도 일치한다. 이 발견은 존재론에 대한 철학적 사고까지도 바꿔 놓았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어떠한 것이라도 본질을 알 수는 없다. 알기 위해서는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본질을 바꾸기 때문이다. 과학적 측정은 본질을 아는 것이라기보다 본질이 우리의 측정 행위(혹은 사고행위)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마치 스프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늘여서, 이 스프링이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는 초등학교생과 같이, 우리는 항상 본질을 알기 위해서 본질을 늘이거나 줄이거나 한다. 우리가 보는 꽃 역시 꽃을 본다가 보다, 꽃의 표면을 빛을 쬐어서, 이 빛이라는 에너지 덩어

기도 한다. 그러나 제행무상은 바로 2500년 후, 하이젠버그가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와 상통하는 단순하고도 명백한 우주 존재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모든 존재와 존재로부터 일어나는 상호 관계들이 어느 한 순간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아니, 이렇게 변화하는 자체가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도 명료한 가르침인가.

이러한 존재원리가 '나', '나의 소유', 그리고 '절대'라는 개념들이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 낸 부질없는 오류인 것을 성명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유 없이 마음이 허덕일 때, 가만히 앉아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마음, 아니 우주의 존재 원리를 체득하도록 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문병성

**『일만배』 절수행 동참안내**  
 절 수행으로 불자의 근본인 신심을 키웁니다

- 때 : 2006년 1월 21일(토) 0시부터 ~ 24시까지(금요일 오후 11시까지 도착해야 함)
- 장 소 : 도솔산 도피안사 아라한전(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 지 도 : 덕암거사 박종린 법사(동국역경원 역경위원 016-204-4744)
- 동참금 : 50,000원

(또한 매달, 첫째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삼천배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삼천배 시작 한 시간 전까지 도착 요망. 동참금 : 20,000원)

불교신앙은 부처님 자비광명이 실제함을 믿는 것로부터 출발하고, 수행정진을 통해 끊임없이 그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는 자기극복을 위한 공부, 용맹정진이 있어야 합니다. 일심으로 절하면서 엄불(나무아미타불), 염승(마하반야바라밀)하는 용맹정진의 절수행은 자신의 참된 성품인 부처님께 예배공경하고, 업보업장이라는 한국불교의 굴레를 한 달음에 벗어나 모두를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인도하는 뛰어난 수행법입니다.

이러한 절수행의 용맹정진을 통해서 자기극복을 이루어 삼매를 닦아 얻으며,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나태와 방종을 물리치며, 환한 얼굴과 밝은 미소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게 되어 원만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하는 일마다 충실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생명 부처님무량공덕성명 용맹정진하여 바라리다국토 성취한다

**연락처**  
 • 전 화 : (031) 676 - 8700 • 전 송 : (031) 676 - 8704  
 •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 E-mail : dopiansa@kornet.net

다시 보는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더라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중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그림 당사주 대전 /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 4x6배판/이선일, 전호일 공저/25,000원 / 신국판/양정분/김성진 지음/30,000원 / 신국판/양정분/공유성 지음/ 5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장호)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훤히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수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좌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땅·기계·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공명하는 법
- 대인관계(사업·교제·결혼·취직)의 공명
- 인간 일처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당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을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기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